

“학생이 건강한 학교 만들겠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마음·신체 건강 성장 학교 정책 발표 공립유치원 등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교실 공간 혁신 등 담야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한 ‘관계 회복 중심·마음·신체 건강 성장 학교’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천 예비후보는 우선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립유치원은 3세 반 12명, 4세 반 14명, 5세 반 16명 규모로 운영하고, 초·중학교는 학급당 20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시작으로 교실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따뜻하고 안정적 교실 환경을 조성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자기주도형 인성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생 간 갈등 예방과 회복을 위해 관계 회복 속려제’를 내실화하고, 학교 폭력 처리 일일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청이 맡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마음·건강 학교’ 정책도 포함됐다. 마음버무처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정서교육 시간을 기존 8차에서 17차 시로 늘린다. 학교 내 마음건강실을 운영하고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해 상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내실화해 학업

이탈 학생의 재도약을 돕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확대한다. 희귀질환 학생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검진 체계를 고도화해 학생 건강권을 촘촘히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급식 정책도 강화한다. 친환경 무상 급식을 지속 확대하고, 로컬푸드와 저탄소 식단을 반영한 ‘기후급식’을 추진해 2028년까지 전체 급식의 50%를 지역·친환경 식재료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침 밥차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아침 결식을 줄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학교, 웃음이 넘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걱정 없이 배우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전북대, AI 분야... 실무형 방산 AI 전문인력 양성 박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인공지능(AI)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급변하는 첨단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대는 향후 5년간 매년 14억2,500만원씩 총 71억 2,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전북대는 이를 바탕으로 K-방산의 급격한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산 AI 특화 부트캠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습득을 넘어 국방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위산업 전문 AI 인재 육성이’다. 교육과정은 △자율이동체계 무인기, 로봇 등) △방산경영 및 MRO(유지·보수·정비) △군수 AX(AI 전환) △사이버보안 등 4개 중점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전북대는 산업계 실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방산 및 IT 분야 최고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 로템,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등 메이저 방산 기업을 비롯해 크라아트웍스 42마쿠, 이노태움, 한컴라이프케어, 테크7엔, 캠퍼스종합기술원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교육과

정 개발 및 운영에 대거 참여한다. 이러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와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 간 650여 명의 실무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수준별 집중 교육을 통해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 받으며, 참여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프로젝트 수행 및 우선 채용 가산점 등 파격적인 취업 지원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미 올해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첨단방위산업학과 학부 과정을 개강하였으며, 이번 부트캠프 사업 선정을 통해 학위 과정과 단기 집중 과정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방산 인재 양성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괄사업책임자 강은호 전북대 첨단방위학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우리 대학이 보유한 국방 AI 및 로보틱스 분야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K-방산 기업 현장에 적응하는 밤·60회 클락에서 45초·3회 클락으로 줄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반복 행정업무 자동화 지원 전북교육청, 데이터 도구실 개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반복 행정업무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도구실’을 개설했다.

도교육청은 정책기획과 누리집에 데이터 처리 자동화 도구를 모은 ‘데이터 도구실’을 마련하고, 총 19개의 자동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각 도구에는 용도와 사용 방법, 주요 기능을 함께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도구로는 여러 엑셀 파일과 시트를 간편하게 합칠 수 있는 ‘엑셀 병합 도구’, 취합 자료의 학교명을 표준 학교명으로 정리해주는 ‘학교명 표준화 도구’, 한글(HWP) 문서를 한 번에 PDF로 변환하는 ‘한글-PDF 일괄 변환 도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교 간 거리와 이동 시간을 한 번에 산출하는 도구, 전북 학사일정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추출해 일정 관리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등도 제공된다.

특히 모든 도구는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 자동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 현장의 체감 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업무 개선 사례도 나타났다. 교육이수증 PDF 10개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처리할 경우 880초와 마우스 클릭 30회가 필요했으나,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면 10초와 클릭 5회로 단축됐다. 한글 파일 10개를 PDF로 변환하는 업무 역시 104초·60회 클릭에서 45초·3회 클릭으로 줄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도교육청은 향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자동화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학교 즉각 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전주교육지원청 제공)

3월부터 ‘학교 즉각 지원체계’ 운영 본격

전주교육지원청, 새학기 맞아... 학교 요청 사항 즉각 대응·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핵심

전주교육지원청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학교 즉각 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결로, 더 빠르게·더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지원체계는 △학교 요청 사항 즉각 대응 △24시간 이내 현장 방문 지원 △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현장 민원 신속 처리 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학교에서 긴급하거나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담당 부서가 직접 학교를 찾아 24시간 이내 현장 지원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학사 운영과 재정·계약 업무, 시설 관리,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별 전문 지원도 강화한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대응팀’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애로사항 역시 단순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 해결 방식으로 접근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체계를 청렴 기반 행정혁신과 연계해 추진하고, 학교와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렴

동행 지원 원칙을 적용한다.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되 기준과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교육청은 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원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3월 1일부터는 학교가 온전히 학생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3일 청원조화를 통해 전 직원이 슬로건을 공유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학교 즉각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2026 도내 초등 학력신장 선도학교 19곳 선정

전북교육청, 초등 기본학력 향상·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기본학력 향상과 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2026 초등 학력신장 선도학교 19개교를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했으며, 교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 학교에는 교당 500만~900만원의 예산과 함께 교과지도 및 학습코칭 관련 연수·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선도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초등 학력신장 선도학교는 정책적

유형과 ‘교과 집중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책 적용형은 5개교가 운영하며, 초등 학습플래너와 교과별 탐구노트 3종(초등어휘사전 1600, 초등수학개념노트, 초등영어활용노트),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 등 주요 학력신장 사업을 학습 전 과정에 연계해 적용한다.

교과 집중형은 국어 6개교 수학 5개교 영어 3개교 등 총 14개교가 참여한다. 국어는 읽기·쓰기 중심 수업, 수학은 개념·이해 중심 수업, 영어는 어휘·활용 중심 수업을 강화해 학생들의 교과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선도학교로 선정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책 적용형과 교과 집중형 운영을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과 교과 중심 수업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초등 학력신장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우수 모델을 도내 학교에 확산하고 초등 단계 기본학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달 26일 군산시 하수처리장에 국내 최초로 고율 바이오수소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

국내 최초 고율 바이오수소 플랜트 실증 착수

국립군산대, 플랜트 준공식 열고 실제 산업 적용 가능성 검증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엄기욱은 지난달 28일 환경공학과 정주형 교수 연구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상목) 박정훈 수석연구원 연구팀, 연세대 김상현 교수, SK에코플랜트 최옥경 프로, 건국대 양영현 교수, 고려대 이상훈 박사와 공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하수처리장에 국내 최초로 고율 바이오수소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파일럿 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탄소중립형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의 산업적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팀은 실험실 규모에서 확보한 혼합균주 개량 기술과 전도성 담체 기반 고효율 발효 실험정을 연속식 파일럿 공정으로 확장에 실제 산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연속식 운전 조건에서 개량 균주를 실제 공정에 적용해

일일 수소 생산량 30.0m³H₂(0) 이상 달성 및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 2kg CO₂/kgH₂ 이하 달성을 목표로 운영하며, 30일 이상의 장기 운전을 통해 생산성 및 공정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팀은 그동안 빛이 필요 없는 암발효 공정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 미생물(Clostridium 속)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전도성 담체를 적용해 미생물 간 전자 전달을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해 왔다.

또한 이미 의미미한 수소 생산 증대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번 파일럿 가동이 해당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번 파일럿 운전은 실험실 성과를 실제 공정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장기 운영을 통해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수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교육청, 도내 초·중·고

졸업앨범비 8만원 전액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중·고 졸업예정 학생에게 1인당 8만원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총 99억9,082만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졸업앨범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난해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졸업앨범비는 학생 1인당 8만원 이내에서 학교별 앨범 계약 단가에 따라 각 학교로 교부되며, 학생들에게는 현물인 졸업앨범으로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초·중·고 졸업예정자 1만 4,155명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 계약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10일까지 신청접수

전주교육지원청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추진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자율과 예방 중심의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2026년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가 자체 감사관을 구성해 학교 업무 전반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따라 자율적으로 시정·개선하는 제도다. 업무 담당자의 1차 점검과 내부감사관의 2차 점검을 거친 뒤 외부감사관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6년도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된 공립 단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2월이었던 신청 마감 시간을 3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청렴노력도 평가 ‘최우수’ 선정

전주교육지원청이 2025년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청렴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025년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교육감 표창과 함께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반부패·청렴 사책 이

행 노력과 실천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 직원의 꾸준한 청렴 실천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재교육원 1층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 공유 행사를 열었다. /오상근 기자